



KIEP 기초자료

20-09

2020년 7월 17일

몽골 축산물가공업 육성 동향과 한·몽 협력 과제

정동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dyjeong@kiep.go.kr, 044-414-1167)



몽골 축산물가공업 육성 동향과 한·몽 협력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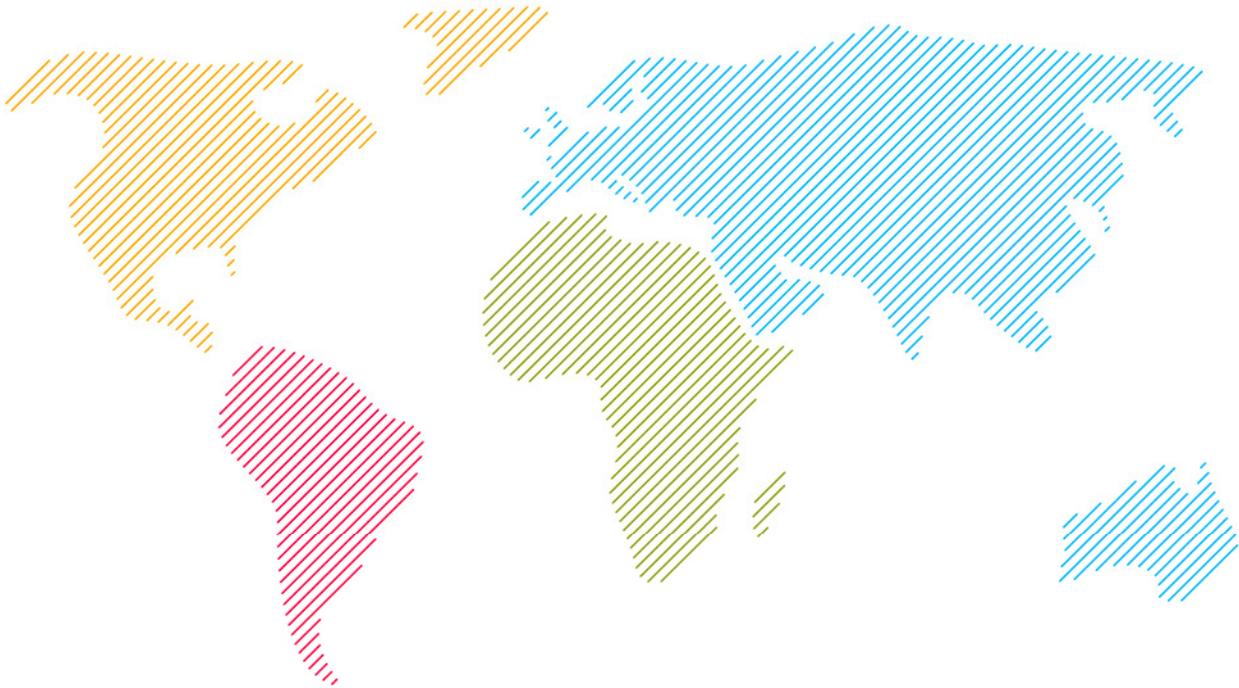
요약

- ▶ 몽골은 원자재 의존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농축산물과 광물자원의 단순가공에 그치고 있어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
 - 축산물가공업을 경공업 분야 핵심 육성산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축산물의 국내 가공 비중 및 가공 수준이 낮음.
 - 몽골은 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수입대체화 및 수출산업화를 목표로 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선진 인프라 및 기술 도입을 위해 자본, 경험, 기술력을 갖춘 제3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 최근 우리 정부는 한·몽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북방지역의 넓은 배후시장을 활용한 경제협력, 중소 벤처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몽골 협력전략을 새롭게 발표
 - 그동안 한·몽 협력은 교역을 중심으로 투자 진출이 미미했으나, 우리 정부는 동부권 거점 협력 국가로 몽골을 선정하고 맞춤형 협력 모델을 발굴해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모멘텀을 마련할 계획임.
 - 그 일환으로 몽골의 제조업 및 수입대체 산업 육성에 부응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기술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 ▶ 한편 중국은 육류 등 식품가공 부문에서, 이탈리아는 캐시미어 섬유가공 부문에서 각국의 강점과 역량을 활용해 몽골과 경제협력을 확대
 - 중국은 몽골 육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검역을 지원하고, 자본 및 기술력을 활용해 몽골 내 육류 가공 공장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
 - 몽골 캐시미어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는 몽골에 '섬유기술센터'를 설립하고 첨단 설비 및 기술, 인재양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섬유부문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일본은 몽골의 최대 원조공여국으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즈니스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민간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등 비즈니스 협력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 ▶ 축산물가공업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한국과 몽골의 정책적 수요가 일치해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 한국과 몽골은 2020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신규 협력 분야 발굴을 통해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 한국의 강점 및 상호 협력 수요를 고려한 차별적인 협력전략을 마련하고, 1.5트랙 협의체 운영, 인프라 투자 및 기술 협력, 인재양성 지원, 수의협력 등을 통해 민간투자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음.
 - 몽골은 일본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EU와는 GSP 플러스를 통해 축산물가공품을 포함한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고 있으며, 미국은 몽골 캐시미어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검토 중에 있어, 제3국으로의 수출 가능성을 고려한 협력 증진방안 모색이 적극 요구됨.



차 례

1. 연구 배경

2. 축산물가공업 현황과 정책 동향

- 가. 캐시미어·양모 및 육류 시장 현황과 특징
- 나. 산업 육성정책 방향

3. 축산물가공 부문 주요국 협력 사례

- 가. 중국
- 나. 이탈리아
- 다. 일본
- 라. 기타(EU, 미국)

4. 한·몽 경제협력 평가 및 추진 과제

- 가. 한·몽 경제협력 평가
- 나. 추진 과제

참고문헌

1. 연구 배경

■ 광물자원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몽골은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를 국가 장기 발전과제로 삼고 있음.

- 몽골은 광업이 GDP의 24%,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자원 의존경제로 원자재 가격, 수출대상국의 경기둔화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여 경제위기를 반복적으로 경험
- 몽골 정부는 2009년과 2014년에 발생한 외환위기의 원인분석 결과(광업에 집중된 산업구조와 제조업의 미발달)를 바탕으로 제조업 발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경공업 분야에서 축산물가공업 육성을 강조
- 이에 축산물 가공역량 증대와 수입대체 및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목표로 '지속가능발전개념 2030', '국가 캐시미어 프로그램 2018~21', '건강한 식품·건강한 몽골 2019~23', '비전 2050' 등의 국가 발전전략 및 산업 육성정책을 연이어 수립(표 3 참고)

■ 몽골은 풍부한 축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축산물의 1차 가공 및 판매에 그치고 있어 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 산업 육성이 주요 과제임.

- 가축 두수, 목축업 생산액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말고기를 비롯한 육류 및 식품가공 제품의 수출도 확대되고 있으며, 캐시미어 등 섬유제품은 광물에 이은 대표적인 수출품
- 그러나 축산물 가공 수준이나 국내 처리비중은 낮은 편으로, 몽골 내 양모 및 캐시미어의 완전가공 비율은 25%, 육류 가공 비율은 10% 내외

■ 양국은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이에 본 자료에서는 몽골의 축산물가공업 현황 및 주요 육성정책, 주변국과의 협력 동향을 파악하고 한·몽 협력 가능성 및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몽골산 캐시미어 제품 수입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한국정부가 몽골에 축산물가공업 협력을 제안한 바 있음.

2. 축산물가공업 현황과 정책 동향

가. 캐시미어·양모 및 육류 시장 현황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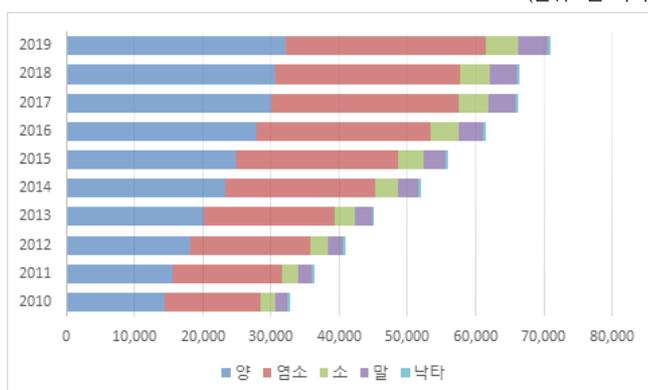
■ 목축업은 몽골의 전통적인 산업으로, 가축 두수와 축산물 생산량, 목축업 생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옴.

- 농업은 몽골 GDP의 11%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로, 목축업이 농업생산의 약 85%를 차지¹⁾

- 양, 염소, 소, 말, 낙타 5종을 주로 사육하며, 고기, 털, 가죽, 우유 등 축산물을 생산
- 특히 캐시미어는 중국(내몽골)에 이어 세계 2위 생산국으로, 세계 공급량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상품²⁾
- 전체 가축 두수가 2019년 총 7,097만 마리로, 2010년(3,273만 마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축산물 생산도 함께 늘어남.
- 목축업 총생산액은 2018년 4조 3,900억 투그릭(약 15억 5,200만 달러)³⁾으로, 2010년 1조 3,500억 투그릭 대비 3배 이상 증가

그림 1. 가축 두수(201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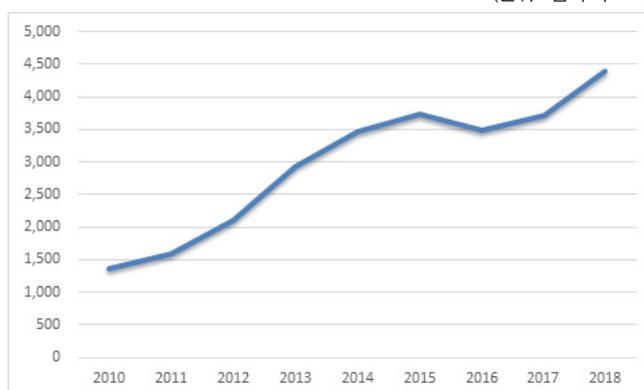
(단위: 천 마리)



자료: 몽골통계정보서비스(검색일: 2020. 6. 9).

그림 2. 목축업 총생산액(2010~18년)

(단위: 십억 투그릭)



■ 축산물가공업 부문* 생산은 2010년 2,183억 투그릭에서 2019년 1조 2,853억 투그릭(약 4억 5,500만 달러)으로 증가했고, 전체 제조업 생산 대비 비중도 24.8%에서 34.7%로 약 10%p 늘어남.⁴⁾

* 몽골통계정보서비스 제조업 세부 분류 중 축산물 가공 관련 △육류 및 식품 가공·보존 △유제품 제조 △직물제조 △의류 제조 및 포피 드레싱·염색 가공 △가죽 가공 및 가죽제품 제조 부문을 별도 분류함.

- 직물제조가 축산물가공 산업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육류 및 식품가공·보존, 유제품 제조 순임.
- 전체 제조업 대비 육류 및 식품가공, 유제품 제조 비중이 2010년 7.5%에서 2019년 13.7%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직물 제조(16.3→19.3%), 가죽(0.13→0.56%), 의류 가공(0.82→1.09%) 부문도 늘어남.
- 주요 축산가공 제품으로는 빗질·세척한 양모 및 캐시미어, 캐시미어 니트웨어, 가죽 제품(부츠·코트·재킷)과 유제품, 육류 가공 제품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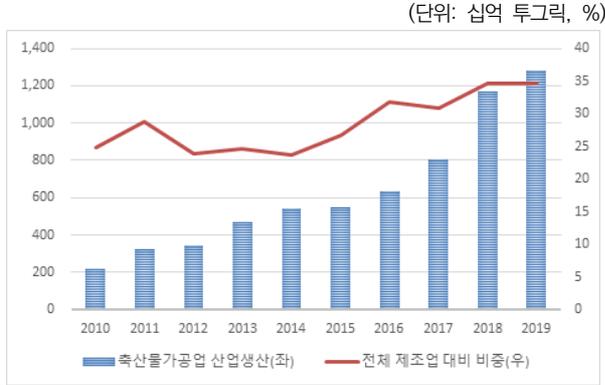
1) 몽골통계정보서비스(검색일: 2020. 6. 9); *Mongolian Statistical Year Book 2018*, p. 495(검색일: 2020. 6. 14).

2)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울 및 캐시미어 제조(Ноос ноолуура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үйлдвэрлэл)'(검색일: 2020. 6. 10).

3) 2020년 7월 6일 기준 1USD = 2,827.74MNT.xe.com(검색일: 2020. 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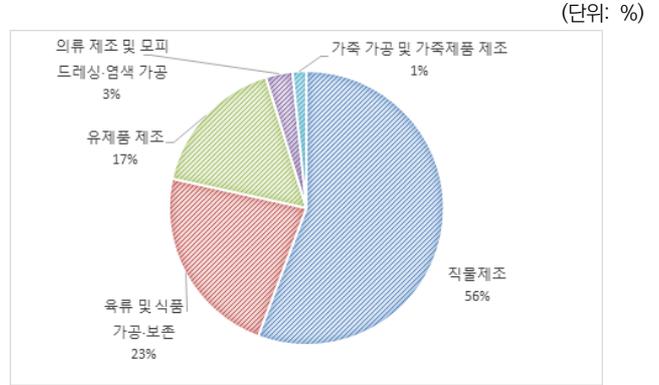
4) 몽골통계정보서비스(검색일: 2020. 6. 9).

그림 3. 축산물가공업 산업 생산 및 전체 제조업 대비 비중 (2010~19년)



자료: 몽골통계정보서비스(검색일: 2020. 6. 24).

그림 4. 축산물가공업 세부 분류별 생산비중(2019년)



■ 몽골의 10대 수출품은 광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액 및 총수출 대비 비중이 증가해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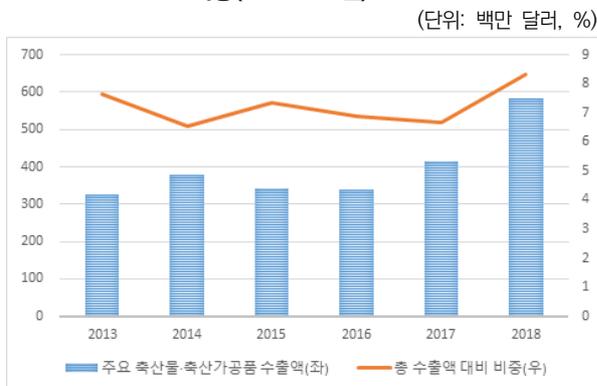
- 주요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의 수출액이 2013년 3억 2,700만 달러에서 2018년 5억 8,300만 달러로 증가했고, 총수출 대비 비중도 2013년 7.6%에서 2018년 8.3%로 상승

* 주요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은 상기 기간 동안 주로 수출된 양모·수모(HS코드 51), 육과 식용 설육(02), 육·어류 조제품(16), 편물제 의류(61), 원피가죽(41) 5개 품목임.

- 양모·수모는 비광물 제품 중 최대 수출품으로 2018년 전체 수출 중 3위(5.17%), 육류와 그 조제품도 수출액 기준 6위와 8위를 기록

○ 양모·수모 수출의 대부분은 캐시미어로 가공하지 않은 것의 비중이 크며, 육류의 경우 생고기와 가공제품이 비슷한 규모로 수출(표 2 참고)

그림 5. 주요 축산물·축산물가공품 수출액 및 총수출 대비 비중(2013~18년)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0. 6. 11).

표 1. 몽골의 10대 수출 품목(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HS코드	품목	금액	비중
1	27 광물성 연료에너지	3,210	45.79
2	26 광(鑛)·슬래그(slag)·회(灰)	2,670	38.08
3	51 양모·수모	363	5.17
4	25 토석류·소금	190	2.71
5	71 귀석, 반귀석, 귀금속	145	2.07
6	02 육과 식용 설육	86	1.23
7	74 동과 그 제품	82	1.18
8	16 육·어류 조제품	80	1.14
9	61 의류(편물제)	38	0.54
10	84 보일러 기계류	21	0.31
총액		7,012	100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0. 6. 11).

표 2. 몽골의 10대 축산물 및 축산가공 수출품(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수출품			
	HS코드	품목	금액	비중
1	5102	빗질하지 않은(not carded or combed) ⁵⁾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281	4.01
2	1602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고기·내장·피(소시지 외)	79	1.13
3	205	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생고기 및 냉장·냉동 고기)	65	0.93
4	5105	빗질한(carded or combed)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58	0.82
5	5101	빗질하지 않은(not carded or combed) 양모	20	0.29
6	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생고기 및 냉장·냉동 고기)	16	0.22
7	6110	편물제 저지·폴오버·카디건·코트 및 유사 의류	13	0.18
8	6106	편물제 여성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	8	0.12
9	4104	소나 마소 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	8	0.12
10	4106	소, 마소, 면양, 어린양을 제외한 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	5	0.07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20. 6. 11).

■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가공 수준 및 몽골 내 가공비중이 낮아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

- 양모와 캐시미어의 몽골 내 완전가공(원사, 편물 제품 등) 비율은 2019년 기준 약 25%로, 나머지는 세척(washed)·빗질(de-hairing) 등의 1차 가공 후 유통⁶⁾
- 2018년 소, 양, 염소, 돼지고기 생산량 51만 5,000톤(도축 시 무게)의 9.9%인 5만 1,120톤의 육류가공 제품을 생산⁷⁾
- 식품가공 및 섬유·의류 제조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원료 구입 및 기술개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⁸⁾
 - 2020년 1/4분기 기준 식품가공 및 섬유·의류 제조업체의 87%는 고용규모가 1~9명임.⁹⁾

■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와 규제역(FMD: Foot and Mouth Disease) 등이 몽골 축산업 발전의 제약요인임.

- 섬유, 육류, 가죽 등 몽골이 수출하는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약 80%가 중국으로 수입
 - 양모·수모는 중국(83.7%)과 이탈리아(13.0%), 편물제 의류는 한국(21.3%) 및 일본과 프랑스(각각 12%)로 주로 수출
 - 육 및 식용 설육과 그 조제품의 82.8%, 가죽제품의 68.8%가 중국으로 수출
- 몽골 내에서 규제역이 빈번하게 재발하면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로 수출환경이 불안정¹⁰⁾

5) 카딩(carding)과 코움(comb) 공정은 섬유의 엉킨 부분을 풀고 평행하게 병렬시키며, 불순물과 단섬유를 제거함으로써 정제된 캐시미어를 분류하기 위한 과정임. 관세법령정보포털, 세계 HS(검색일: 2020. 6. 11).

6)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ҮЙЛВЭРМИЙТ 21-ЮУ ҮНДСНИЙ ХӨЛӨВРИЙН ХӨЛӨВРИЙН ХЭРЭЖИЛИЙН ХЯНАЛТИЙНХИЙГЭЭ ҮНДЛЭЭНИЙ ТАЙЛАН”, p. 112(검색일: 2020. 6. 14).

7) 몽골통계정보서비스, *Mongolian Statistical Year Book 2018*, p. 495, p. 536(검색일: 2020. 6. 14).

8) “China, Mongolia see great potential for cashmere trade”(2018. 8.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22).

9) 몽골통계정보서비스(검색일: 2020. 6. 11).

10) Christopher de Gruben(2018. 11. 12), “The meat processing industry in Mongolia: key players and activities”(검색일: 2020. 6. 23).

나. 산업 육성정책 방향

■ 몽골 정부의 축산물가공업 기본 육성전략은 축산물 가공역량 증대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수입대체화, 수출 지향적 산업화이며, 이를 위해 자본 및 기술, 발전 경험을 갖춘 제3 국가와의 협력을 도모함.

- 2015년 발표된 ‘국가산업정책 2015~30’에서 선진 기계장비와 기술 도입을 통해 제조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점분야가 되도록 한다는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농축산물의 심층가공 발전을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¹¹⁾
- ‘지속가능발전개념 2030’에서는 2030년까지 총수출 대비 가공제품 비중을 5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선진기술 도입과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진 및 경쟁력 향상을 강조¹²⁾
 - 수출지향 가공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2030년까지 가죽·양모·캐시미어 원료의 심층가공 비중을 80%로 향상
 - 식품 수출 규모 및 품목을 확대하고, 육류 및 우유 제품 국내소비량의 70~80%를 국내 가공을 통해 공급
- 2018년에는 제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몽골 21개 지역에 100개의 공장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화 21:100’ 정책을 발표¹³⁾
 - 각종 금융, 법제 지원과 함께 울란바토르 시 및 21개 도에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해 2021년까지 100개의 공장을 건설할 계획
 - 2019년 말 기준 42개가 운영, 19개가 건설 중이며, 100개의 신설 공장 중 40개 이상이 육류·유제품·가죽·양모·캐시미어 등의 축산물가공 공장임.¹⁴⁾

■ 몽골 정부는 2020년 5월, 향후 30년의 국가발전 방향과 정책을 담은 장기 개발계획 ‘비전 2050’¹⁵⁾을 확정하고, 제조업(중·경공업, 식품)을 6개의 우선육성 산업 중 하나로 선정함.

- 경제 발전부문 세부 과제로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 조성, 중산층 육성, 우선개발 분야 육성 및 수출주도 경제개발, 포괄적 금융시스템 개발, 역내 협력을 통한 무역촉진 등을 제시
- 이를 통해 GDP 및 수출 증대와 더불어 2050년까지 GDP 중 제조가공업 비중을 27.4%까지 높이고자 함.
 - 수입대체 및 수출지향 경공업 육성을 목표로 농축산물의 가공 수준을 높이고 가공제품의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캐시미어의 가공 수준 향상과 완제품 수출을 확대할 계획

11) 김보라(2020), p. 52.

12) State Great Hural of Mongolia(2016), “Mongolia sustainable development vision 2030,” p. 11, pp. 16-17(검색일: 2020. 6. 14).

13) 김보라(2018), p. 5.

14)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ҮЙЛДВЭРЖИЛТ 21-100’ ҮНДЭСНИЙ ХӨТӨЛБӨРИЙН ХӨТӨЛБӨРИЙН ХЭРЭГЖИЛТИЙН Х ЯНАЛТ-ШИНЖИЛГЭЭ, ҮНЭЛГЭЭНИЙ ТАЙЛАН,” p. 112(검색일: 2020. 6. 14).

15) 몽골이 안고 있는 소득불평등 심화·광업 의존경제 구조·거버넌스 불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자, 1992년 이후 발표된 국가 개발정책 517개를 분석해 9개의 핵심 목표를 수립함. 경제성장 단계에 따른 발전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개념 2030’을 계승하는 장기 성장정책임. 9대 핵심 목표는 △국가통합가치 공유 △인간개발 △삶의 질 향상과 중산층 육성 △경제발전 △바른 정부 △녹색 성장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지역개발 △울란바토르 및 위성도시 발전임. 몽골 통합법률정보네트워크, 비전 2050 결의문 및 부속서 참고하여 저자 정리(검색일: 2020. 6. 15).

표 3. 축산물가공업 부문 주요 육성정책

정책(발표시점)	달성 목표	세부 내용
비전 2050 (2020)	- 경제구조 개편, 경쟁력 향상, 수입대체 및 수출지향 중·경공업 육성 - 2050년까지 총 GDP 중 제조가공업 비중 27.4% 달성	- 농축산물 가공 수준 향상 및 수출 증대, 가공제품 수출 확대 - 1단계(2021~30) 세부 이행과제 • 수입관세규정 개정 등을 통한 국내 생산 지원 • 고도 가공기술 도입을 통한 중·경공업 생산량 증대 • 빗질(de-hairing, combing)한 캐시미어 및 완제품 수출 증대 • 가죽, 양모, 캐시미어의 완전한 가공과 기성복 의류·직물 수출 증대
건강한 식품·건강한 몽골 국가 프로그램 (2019)	- 식품가공 부문 경쟁력 향상 및 수출 증대	-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식품 수출에 대한 특혜관세 조건 도입 - 식품 가공기술 혁신 및 운전자금 지원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 - 국제기구 및 해외 국가원조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출 지원
산업화 21:100 (2018)	- 선진 기술과 기계 도입을 통한 수입대체 및 수출 지향적 제조업 발전 촉진	- 금융, 법제 지원과 함께 몽골 21개 도와 울란바토르 시에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공장 100개 건설
국가 캐시미어 프로그램 (2018)	- 캐시미어 생산기술 향상 - 캐시미어 제품 종류 및 생산·수출 증대 - 2021년까지 캐시미어 완전가공 비율 60% 달성	- 완제품 생산 및 수출에 유리한 법·투자·조세 환경 조성 - 캐시미어 가공역량 향상 및 완제품 생산·수출 증대 - 인재양성을 통한 생산성 증대 추진
지속가능 발전개념 2030 (2016)	- 선진기술 도입과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진 및 경쟁력 향상 - 2030년까지 총수출 대비 가공제품 비중 50% 달성	- 수출지향 가공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2030년까지 가죽·양모·캐시미어 원료의 심층가공 비중을 80%로 향상 - 식품 수출 규모 및 품목을 확대하고, 육류 및 우유 제품 국내소비량의 70~80%를 국내 생산
국가산업정책 2015~30 (2015)	- 선진 기계장비와 기술 도입을 통한 제조업 발전 - 제조업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점 분야로 육성	- 농축산물의 심층가공 발전

자료: 김보라(2020); State Great Hural of Mongolia(2016), "Mongolia sustainable development vision 2030"; 몽골 식량농업공업부, "Үйлдвэржилт 21-100 Үндэсний Хөгжлийн Хөтөлбөрийн Хэрэгжилтийн Хяналт-Шийдвэрлэлтэй Үндэсний Тавиур"; 몽골 통합법률정보네트워크, 비전 2050 결의문 및 부속서; UNDP(2019), "Comparative Analysis of Sustainable Cashmere Projects in Mongolia"; 몽골 통합법률정보네트워크, 국가 프로그램 '건강한 식품-건강한 몽골' 결의문 및 부속서를 참고(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6. 14~15)하여 저자 정리.

■ 핵심 수출품목인 캐시미어 및 식품 가공 분야는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국가 캐시미어 프로그램 2018~21] 낮은 완전가공 비율, 현장 현금 거래를 통한 캐시미어 원료의 미신고 수출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캐시미어 생산기술 향상, 캐시미어 제품 종류와 생산·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개발¹⁶⁾
- 캐시미어 완전가공 비율 60% 달성을 목표로 △완제품 생산 및 수출에 유리한 법·투자·조세 환경 조성 △염소 품종 개선 등 캐시미어 품질 향상 △캐시미어 가공역량 향상 및 완제품 생산·수출 증대 △친환경 기술 도입 △인재양성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세부 목표로 수립
-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 허가 및 부가가치세 부과 등에 대한 법령을 개정하고, 기계·장비 등 캐시미어 제품 생산을 위한 보조물품의 수입을 지원하는 한편, 몽골개발은행(DBM)이 5,000억 투그릭(약 1억 7,700만 달러) 규모의 캐시미어발전기금(Cashmere Development Fund)을 조성해 관련 기업에 운영자금을 대출

16) UNDP(2019), "Comparative Analysis of Sustainable Cashmere Projects in Mongolia," pp. 35-39.

- 캐시미어 가공역량 향상부문에서는 방적공장 설립,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중소 규모의 섬유기업을 클러스터에 등록시켜 기술 및 디자인 전수와 공동 판매 등을 추진
 - [건강한 식품·건강한 몽골 국가프로그램] 2019~23년까지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식품가공 부문 경쟁력 향상, 식품 수출 확대, 농·목축업자 수입 증가,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 제공 등을 목표로 수립¹⁷⁾
 - 추진 목표 중 하나인 식품가공 부문 경쟁력 증진 및 수출지향 산업 육성부문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식품 수출에 대한 특혜관세 조건 추가 △식품가공 기술 혁신 및 금융 지원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 △정부에서 구입하는 국내 생산 식품 수와 유형 확대 △국제기구 및 해외 국가원조 프로그램을 통한 수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
- 한편 몽골 정부는 코로나19로 캐시미어 유통과 거래가 중단되고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라 목축업자의 수입을 보장하고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목축업자에 대한 보조금 및 제조업자에 대한 저리 대출을 제공함.
-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몽골 캐시미어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유통업체가 구매를 중단하고 주요 소매업체도 주문을 취소하는 등 유통과 거래가 중단되었으며, 그에 따라 캐시미어 가격이 2019년 킬로그램 당 39달러에서 16달러(2020년 5월 27일 기준)로 급락¹⁸⁾
 - 몽골 정부는 목축업자에게 캐시미어 1킬로그램 당 20,000 투그릭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제조업자를 대상으로는 캐시미어 구입자금을 3%의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¹⁹⁾

3. 축산물가공 부문 주요국 협력 사례

가. 중국

- 중국은 몽골 축산물 및 축산가공 제품의 최대 수입국으로, 최근 육 및 식용 설육과 그 조제품의 수입이 급속하게 증가함.
- 2018년 몽골이 수출한 육 및 식용 설육과 그 조제품의 83%, 양모·수모의 84%, 가죽제품의 69%가 중국으로 유입
 - 말고기(생고기 및 냉장·냉동, HS코드 02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고기·내장·피(HS코드 1602), 빗질하지 않은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HS코드 5102)이 주요 수출품목
 - 특히 축산식품 수출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총수출 비중도 확대
 - 육·어류 조제품(HS코드 16) 수출액은 2014년 7,000달러에서 2018년 7,845만 달러로 약 1만 배 늘어났고(총수출 중 비중 0.00→1.21%), 육과 식용 설육(HS코드 02)의 수출액은 124만 달러에서 5,882만 달러로 약 50배 증가(총수출 대비 비중 0.02→0.90%)²⁰⁾

17) 몽골 통합법률정보네트워크, 국가 프로그램 '건강한 식품·건강한 몽골' 결의문 및 부속서(검색일: 2020. 6. 15).

18) "COVID-19 and Cashmere: Rethinking One of Mongolia's Largest Industries"(2020. 5. 2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15).

19) "Parliament approves cashmere subsidy resolution"(2020. 5. 15); "Government unveils MNT 5.1 trillion plan to help those affected by COVID-19"(2020. 3. 27), 온라인 기사(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6. 15).

■ 양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검역 협력을 확대해왔으며, 최근 중국의 투자로 몽골에 육류가공 공장 건설을 추진 중임.

- 양국은 2014년 ‘무역과 경제협력에 대한 중기계획’을 갱신하고, 교역부문에서 세관 및 식품안전성, 검역당국 교류 확대 등의 협력과제를 수립
 - 또한 중국은 몽골산 육류와 육류가공품 수입을 확대하고, 몽골은 중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기로 합의²¹⁾
 - 중국 검역당국은 2016년부터 육류수출권을 보유²²⁾하고 있는 몽골 업체를 대상으로 2년마다 현장평가와 검역점검을 실시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는 유제품·농산물 제조업체까지 그 대상을 확대
- 오흐나 후렐수흐(U. Khurelsukh) 몽골 총리는 2018년 중국 방문 시 중국이 제공하는 소프트론(Soft Loan) 7,800만 달러를 투입해 몽골 고비(Gobi), 향가이(Khangai), 서부, 동부 지역에 각각 1개씩 총 4개의 육류공장 및 검역 구역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²³⁾
- 중국 내몽골자치구의 농업과학기술회사 아이주이(Ai Zhui)도 4,000만 달러를 투자해 몽골 중부 투우 주(Tuv Province)에 육류가공 공장을 포함한 복합단지 건설을 추진²⁴⁾
 - 복합단지는 연간 100만 마리의 가축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2021년 말 완공 계획

■ 중국은 몽골과 함께 세계 캐시미어 원료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국가로, 양국은 공동세미나 개최를 통한 정보 공유 및 상품거래소 간 협력을 추진함.

- 중국은 세계 최대 캐시미어 생산지(세계 공급량의 약 50%)이자 캐시미어 제품 공급국으로, 몽골산 캐시미어 원료의 대부분을 단순가공 또는 가공하지 않은 형태로 수입해 완제품으로 제조·판매하고 있음.
- 몽골은 2019년 9월, 제3차 몽골·중국 엑스포의 일환으로 ‘몽·중 캐시미어 산업 국제 포럼’을 개최하고, 기술과 인적자원을 보유한 중국의 투자 및 합작 공장 설립을 제안²⁵⁾
- 몽골상품거래소(MCE: Mongolian Commodity Exchange)는 2018년 1월 중국 보하이상품거래소(BOCE: Bohai Commodity Exchange)와 전략적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BOCE를 통해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²⁶⁾
 - 이번 온라인 플랫폼 개설을 통해 몽골 캐시미어의 국제거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나. 이탈리아

■ 몽골은 이탈리아와 캐시미어를 중심으로 산업협력을 추진해왔으며, 2019년에는 ‘이탈리아-몽골 섬유기술센터 (Italian-Mongolian Textile Technology Center)’를 설립하는 데 합의함.

- 몽골의 대이탈리아 최대 수출품은 빗질한(carded or combed) 캐시미어의 털(HS코드 510531)로, 총수출의 86%를 차지

20) UN Comtrade(검색일: 2020. 6. 23).

21) Lkhagvadorj Dolgormaa(2018), p. 6.

22) 몽골 내 60여 개의 육류가공 공장 중 20개 내외가 육류수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Mongolia’s meat export reaches 20-year high”(2019. 1.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23).

23) “Four meat factories to be built with Chinese loan of USD78 million”(2018. 4.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23).

24) “Chinese firm invests 40 mln USD in Mongolian meat-processing complex”(2018. 5.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26).

25) “International forum on Mongolia-China cashmere industry organized”(2019. 9.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23).

26) “Mongolia aims to globalize cashmere trade via joint platform with China’s Bohai”(2019. 3.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23).

- 양국은 2011년 2월 최초로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민간이 참여하는 1.5트랙 대화채널을 통해 캐시미어 산업 협력을 심화
 - 2011년 4월 가죽, 편직, 양모, 캐시미어 부문 워킹그룹 회의를 진행하고, 몽골 양모 및 캐시미어 협회와 이탈리아 섬유 기계협회(ACIMIT: Association of Italian Textile Machinery Manufacturers) 간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²⁷⁾
 - ACIMIT는 2014년 7월 이탈리아 무역청과 공동으로 울란바토르에서 캐시미어 가공기술 현대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이탈리아의 9개 기계 제조업체가 최신 캐시미어 가공기술을 소개²⁸⁾
- 몽골과 이탈리아는 2019년 2월 섬유산업 협력 의향서(LOI)를 교환하고 섬유기술센터 설립을 추진²⁹⁾
 - 이탈리아는 첨단 섬유설비 제공, 인재양성, 노하우 및 신기술 소개, 관리역량 향상 등을 지원할 계획
 - 이를 통해 양국간 섬유산업 협력 강화는 물론 몽골의 캐시미어 완제품 생산역량 향상 및 제3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기대

다. 일본

- 일본은 몽골의 최대 원조공여국으로, 특히 몽·일 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한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일본은 2012년 대몽골 원조정책을 개편하고, 몽골의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강조
 - 이에 인재개발원에서는 몽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양국 민간기업간 교류 확대를 목표로 ‘비즈니스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³⁰⁾
 - 인재개발원은 일본이 ODA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센터(Japan Center)의 하나로, 2002년에 설립
 - 비즈니스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인 ‘모델 기업 양성 사업’에서는 경쟁력이 높은 농축산물인 캐시미어, 유제품, 비타민 나무 열매, 가죽 등 유망 제조업 기업을 선정해 9개월간 일본 전문가들이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일본 현지 연수 및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등을 연계
- 일본은 몽골과 2015년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몽골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을 비롯한 주요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었음(2016년 6월 7일 발효).
 - 몽골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본에 수출하는 양고기·말고기 등 육류, 양모와 캐시미어, 편물제 및 편물제 외 의류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육류가공품의 관세는 단계적으로 축소³¹⁾

27)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2011), “Mongolian-Italian Cooperation in Food Agriculture and Light Industry Sectors,” pp. 20-25.

28) “Italy promotes its textile machinery industry in Mongolia”(2014. 7.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24).

29) “Italian-Mongolian Textile Technology Center to be established”(2019. 2. 2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24).

30) Lkhagvadorj Dolgormaa(2020), p. 12.

31) 일본 외교부 홈페이지, 몽·일 EPA 협정문(검색일: 2020. 6. 26).

라. 기타(EU, 미국)

- 몽골은 유럽의 일반특혜관세제도 중 GSP 플러스 수혜대상국으로,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을 포함한 약 6,40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민감·비민감품목에 관계 없이 면제받고 있음.³²⁾
 - EU는 일반특혜관세(GSP) 제도를 표준 GSP, GSP 플러스, EBA(Everything but Arms) 세 개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으며, 몽골은 표준 GSP 대비 관세면제 범위가 넓고 인권, 환경 등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GSP 플러스 적용국
- 2019년 4월, 몽골에서 생산된 캐시미어 및 섬유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몽골 제3의 이웃 무역법(Mongolia Third Neighbor Trade Act)」이 미국 하원에 제출됨.
 - 몽골 내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이 미국으로 직접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면제(duty-free)하는 것이 기본 내용으로, △ 중량의 23% 이상 캐시미어를 함유하는 직물·섬유로 제조된 의류 및 직물 물품 △몽골에서 완전히 생산된 또는 완전히 형성·절단되거나 편직·가공한 원사와 직물을 사용해 제조한 의류와 직물이 대상³³⁾
 - 몽골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계 2위의 캐시미어 소비시장인 미국 진출을 통해 국내 가공 비중 및 수출규모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몽골의 수출주도 성장 및 산업다각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³⁴⁾

4. 한·몽 경제협력 평가 및 추진 과제

가. 한·몽 경제협력 평가

- 한국의 교역과 투자에서 몽골이 차지하는 비중은 0.1% 미만임.
 - 2019년 기준 한·몽 교역액은 3억 2,367만 달러로, 한국 전체 교역의 0.03% 수준
 - 한·몽 교역은 2012년 이후 몽골 경제 침체 및 투그릭 화폐가치 약세에 따른 구매력 감소의 영향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2017~18년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연초류·건설 중장비이고, 주요 수입품은 의류와 광물
 - 한국의 대몽골 수출품은 경공업 제품에서 점차 자동차, 연초류 등의 기호식품, 중장비로 변화해 왔고, 수입품의 대부분은 광물과 의류로 2015년 이후 의류제품의 수입이 크게 확대되면서 최대 수입품으로 자리 잡음.
 - 2010~19년 한국의 대몽골 직접투자액은 3억 1,366만 달러로, 같은 기간 총 해외직접투자의 0.08%
 - 신규법인은 총 374개 설립되었으며, 주요 투자 분야는 광업, 도소매업, 건설업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4%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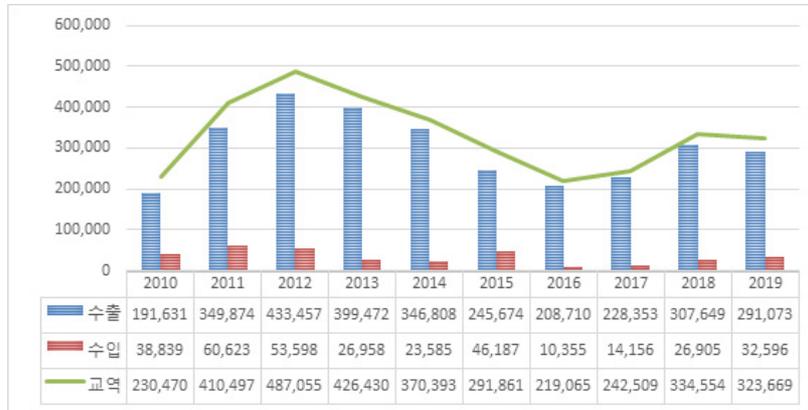
32) UNCTAD(2015),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Handbook of the Scheme of the European Union," p. 9.

33) Congress.Gov, H.R.2219 - Mongolia Third Neighbor Trade Act(검색일: 2020. 6. 23).

34) "US-Mongolia 'Third Neighbor Trade Act' On The Way"(2018. 11.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23).

그림 6. 한·몽골 교역 현황(2010~19년)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0. 6. 17).

표 4. 한국의 대몽골 주요 수출입 품목(2019년)

(단위: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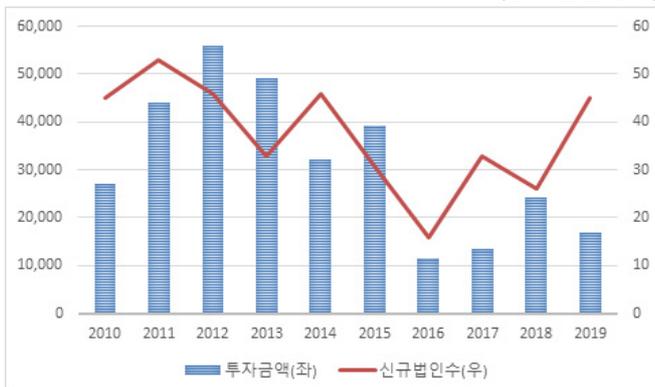
순위	수출				수입			
	HS코드	품목	금액	비중	HS코드	품목	금액	비중
1	87	일반차량	46,001	15.80	61	의류(편물제)	12,355	37.90
2	84	보일러·기계류	42,383	14.56	26	광(鑛)·슬래그(slag)·회(灰)	9,563	29.34
3	27	광물성 연료에너지	26,334	9.05	62	의류(편물제 이외)	3,651	11.20
4	24	담배	21,108	7.25	25	토석류·소금	3,289	10.09
5	33	향료·화장품	16,593	5.70	05	기타 동물성생산물	1,006	3.09
6	85	전기기기·TV·VTR	14,498	4.98	84	보일러·기계류	443	1.36
7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1,356	3.90	16	육·어류조제품	432	1.33
8	30	의료용품	11,182	3.84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339	1.04
9	90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 기기	10,832	3.72	49	서적·신문인쇄물	326	1.00
10	21	기타 조제식료품	9,078	3.12	90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 기기	317	0.97
		기타		28.08		기타		2.68

주: HS Code 2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0. 6. 17).

그림 7. 한국의 대몽골 투자액 및 신규법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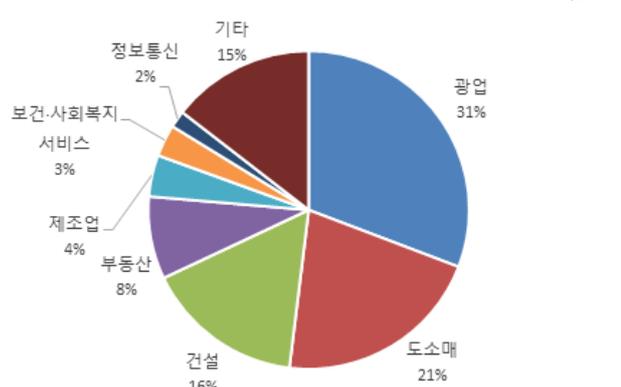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검색일: 2020. 6. 18).

그림 8. 한국의 대몽골 업종별 투자비중(2010~19년 누적)

(단위: %)



■ 양국은 축산물가공업 부문에서 협력해왔으나, 2011년 이후 신규투자 실적이 부재함.

- 양국간 교역은 한국이 몽골로부터 양모·섬수모제³⁵⁾ 의류 및 섬유·직물, 모자 등 액세서리를 주로 수입하는 형태
 - 2015년 이후 편물제 의류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해 총수입 중 비중이 2015년 3.01%에서 2019년 49.10%로 상승
- 식품가공 분야 수입품은 ‘육류 추출물(Meat extracts, HS코드 1603001000)’이 유일하며, 2010년 이후 서서히 수입량이 증가
- 한국의 대몽골 제조업 투자는 의복, 섬유제조에서 금속, 기계 및 장비, 비금속 광물 제조로 변화해왔으며, 축산물 가공 부문에서는 2004~11년 사이 소규모로 투자가 진행됨.
 - 2004~06년 육류가공 부문에 약 58만 달러 투자(신규법인 1개 설립), 2008~11년 가죽·양모·수모 가공(가죽·모피 제조, 직물·편조원단·의복 염색, 편조원단 제조 등) 부문에 약 123만 달러 투자(신규법인 5개 설립)

■ 우리 정부는 2020년 초 신북방 국가의 제조업과 수입대체 산업 육성에 부응하여 우수한 제조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기술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력전략을 발표함.

- 그동안 축산업 협력은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와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간 협의체인 ‘한·몽 농업협력위원회’³⁶⁾를 중심으로 수의 및 축산 기술 전수, 축산 식품 위생·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관리역량 강화 등에 대한 유무상원조 프로젝트를 주로 추진
 - 가축질병진단센터 설립, 축산물 안전·위생 시스템 구축, 농축산물 안전 세미나,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진행 현황을 점검
 - 2012~15년에는 몽골 정부의 요청으로 25억 원을 투입해 ‘몽골 축산물 가공과 위생관리시스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유·육가공 공장 건설 △축산물 가공 및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실현실 및 교육시설 리모델링 △기자재 제공 △전문가 파견 △현지 교육 및 초청연수 등을 실시한 바 있음.³⁷⁾
 - * 해당 사업의 총괄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2019년 말 축산물가공 공장 기자재 설치, 운용 교육, 무상 유지보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후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³⁸⁾
- 한국정부는 신북방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몽골과 축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할 계획
 -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의 신북방 국가 진출과 교역을 확대하고자 몽골을 동부권 거점 협력 국가로 선정하고, 맞춤형 협력 모델을 발굴할 계획³⁹⁾

35) ‘섬수모’는 알파카, 라마, 비큐나, 낙타(단봉낙타 포함), 야크, 양고라염소(모헤어), 티베탄, 캐시미르(캐시미어) 또는 이와 유사한 염소, 토끼(양고라 토끼 포함), 산토끼, 비버, 뉴트리아 또는 머스크래트의 모를 의미. 관세법령정보포털, 세계 HS(검색일: 2020. 6. 11).

36) 2003년 농업 분야 협력약정 체결 이후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 협력 및 교류 증진을 목표로 함. 한국 측 수석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 총괄과장, 몽골 측 수석대표는 식량농업경공업부 식품생산 정책국장임. 가장 최근 개최된 회의는 2018년 1월,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7차 회의임.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참고(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6. 19)하여 저자 정리.

37) 「몽골 최대 수출산업 축산물 가공, 한국 기술로 혁신」(2012. 10.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6. 26).

38) 한국농어촌공사, 입찰공고(검색일: 2020. 7. 15).

39)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20. 4. 22),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검색일: 2020. 6. 23).

나. 추진 과제

■ 한·몽은 2020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신규 협력 분야 발굴을 통해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 이낙연 전 총리는 2019년 3월 몽골을 방문해 양국 관계 격상 및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동북아 지역협력, 환경·보전 협력, 인적교류 촉진방안 등에 대해 후렐수흐 총리와 협의⁴⁰⁾
- 칼트마 바툴가(Khaltmaa Battulga) 몽골 대통령은 수교 30주년 기념 서한에서 한국의 신북방정책에 참여하여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⁴¹⁾

■ 몽골의 축산물가공업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한국과 몽골 양국의 정책적 협력 수요가 일치해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 몽골의 목축업 생산액 및 축산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업 생산 및 수출도 증가
- 몽골은 광물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제조업 육성, 특히 축산물가공업을 경공업 분야 핵심 육성산업으로 강조하고, 선진 인프라 및 기술 도입을 위해 자본, 경험, 기술력을 갖춘 제3국과의 협력을 추진
- 한국은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제조업 등 분야에서 우리 중소 벤처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기술협력을 확대할 계획으로, 몽골과 정책적 협력 수요가 부합

■ 한국의 강점 및 상호 협력 수요를 고려한 차별적인 협력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1.5트랙 협의체 운영, 인프라 투자 및 기술 협력, 인재양성 지원, 수의협력 등을 토대로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 주변국의 대몽골 협력사례를 참고해 몽골의 협력 수요와 한국의 강점 및 역량을 고려한 차별적이고 실효적인 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
 - 중국은 경제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몽골 육류 및 육류가공품 수입을 늘리고 검역협력을 강화했으며, 최근에는 자본 및 기술력을 활용해 몽골 내 육류가공 공장 건설 및 운영에 투자
 - 이탈리아는 몽골 캐시미어의 주요 수출대상국 중 하나로, 섬유가공 기술력을 활용한 기술협력을 추진
 - 일본은 몽골의 최대 원조공여국으로 인재양성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시행 중인 '비즈니스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양국 민간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등 비즈니스 협력기반 조성에 기여
- 몽골은 국가 특성상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고 축산물가공업 부문에서 인프라 투자 및 기술교류에 대한 협력 수요가 있는바, 정부간 논의를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부간 협력이 민간투자로 확산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구제역 대응 등 수의기술력 향상을 위한 몽골의 협력 수요가 높은바, 수의협력 확대·강화를 적극 검토
 - 2018년 개최된 제7차 한·몽 농업협력위원회에서 몽골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의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협력방안을 논의

4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온라인 보도자료(2019. 3. 26), 「몽골 순방(모아오 순방 2일차)」(검색일: 2020. 7. 7).

41) 외교부 온라인 보도자료(2020. 3. 26), 「한·몽골 수교 30주년 기념 양국 정상간 축하서한 교환」(검색일: 2020. 7. 7).

- 몽골은 경제동반자협정(EPA), GSP 플러스를 통해 일본과 EU로부터 축산물·축산물가공품을 포함한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고 있으며, 미국도 몽골산 캐시미어 제품에 대한 무관세 법안을 검토 중에 있어 제3국 수출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 신북방정책의 성과 도출 및 내실화를 위해 한국은 몽골과 중국, 러시아 등 넓은 배후시장을 활용한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하며, 무관세를 적용받는 일본, EU 등 제3국으로의 수출 가능성도 고려한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해야 함.
- 한국과 몽골은 2016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논의를 본격화하고 사전 공동연구를 완료하였으나 후속 논의가 부진한 상황으로, 양국간 교역장벽을 낮추고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EPA 체결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KIEP**

참고문헌

[국문자료]

- 김보라. 2018. 「몽골 후렐수흐 총리의 신경제정책 방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전문가포럼 발표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월 26일)
- _____. 2020. 「한-몽 경제협력 현황과 향후 경제협력 방향-제조업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한-몽 수교 30주년 기념 공동 세미나 발표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5월 22일)
- Lkhagvadorj Dolgormaa. 2018. 「몽·중, 몽·러 경제교류 현황」. 전문가포럼 발표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월 20일)
- _____. 2020. 「몽·일 인적교류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지원 체계」.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 (3월 12일)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19. 「몽골 순방 (보아오 순방 2일차)」. 보도자료. (3. 26). <http://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20991>(검색일: 2020. 7. 7).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018.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몽골과 새로운 경제협력채널 구축」. 보도자료. (3월 10일). https://www.bukbang.go.kr/bukbang/issue_news/release/?mode=view&cntId=8(검색일: 2020. 6. 26).
- _____. 2020.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4월 22일). https://www.bukbang.go.kr/bukbang/about_pr/0010/?mode=view&cntId=40(검색일: 2020. 6. 26).
- 외교부. 2020. 「한-몽골 수교 30주년 기념 양국 정상간 축하서한 교환」. 보도자료. (3. 26).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0103(검색일: 2020. 7. 7).
- 「몽골 최대 수출산업 축산물 가공, 한국 기술로 혁신」. 2012. 『전자신문』. (10월 30일). <https://www.etnews.com/201210300346>(검색일: 2020. 6. 26).

[외국문자료]

- 일본 외교부 홈페이지, 몽·일 EPA 협정문(Agreement between Japan and Mongolia for an Economic Partnership). https://www.mofa.go.jp/a_o/c_m2/mn/page3e_000298.html(검색일: 2020. 6. 26).
-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2011. “Mongolian-Italian Cooperation in Food Agriculture and Light Industry Sectors.” Mongolian-Italian Economic Forum 발표자료. https://media.assolombarda.it/fs/2011102493756_216.pdf(검색일: 2020. 6. 24).
- 몽골 통계정보서비스(Mongoli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9. “Mongolian Statistical Year Book 2018.” https://1212.mn/BookLibraryDownload.ashx?url=YEARBOOK_2018.pdf&ln=Mn(검색일: 2020. 6. 14).
- “China, Mongolia see great potential for cashmere trade.” 2018. *Global Times*. (August 21). <http://www.globaltimes.cn/content/1116419.shtml>(검색일: 2020. 6. 22).
- “Chinese firm invests 40 mln USD in Mongolian meat-processing complex.” 2018. *xinhuanet*. (May 10).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8-05/10/c_137167536.htm(검색일: 2020. 6. 26).

- Christopher de Gruben. 2018. "The meat processing industry in Mongolia: key players and activities." (11월 12일). <http://www.degruben.com/the-meat-processing-industry-in-mongolia-key-players-and-activities/>(검색일: 2020. 6. 23).
- Congress.Gov. H.R.2219 - Mongolia Third Neighbor Trade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2219/text>(검색일: 2020. 6. 23).
- "COVID-19 and Cashmere: Rethinking One of Mongolia's Largest Industries." 2020. *The Diplomat*. (May 27). <https://thediplomat.com/2020/05/covid-19-and-cashmere-rethinking-one-of-mongolias-largest-industries/>(검색일: 2020. 6. 15).
- "Four meat factories to be built with Chinese loan of USD78 million." 2018. *Montsame*. (April 13). <https://montsame.mn/en/read/134571>(검색일: 2020. 6. 23).
- "Government unveils MNT 5.1 trillion plan to help those affected by COVID-19." 2020. *Montsame*. (March 27). <https://montsame.mn/en/read/220354>(검색일: 2020. 6. 15).
- "International forum on Mongolia-China cashmere industry organized." 2019. *Montsame*. (September 12). <https://montsame.mn/en/read/200498>(검색일: 2020. 6. 23).
- "Italy promotes its textile machinery industry in Mongolia." 2014. *Metalworking World Magazine*. (July 24). <https://www.metalworkingworldmagazine.com/italy-promotes-its-textile-machinery-industry-in-mongolia/>(검색일: 2020. 6. 24).
- "Italian-Mongolian Textile Technology Center to be established." 2019. *Montsame*. (February 27). <https://montsame.mn/en/read/181432>(검색일: 2020. 6. 24).
- "Mongolia aims to globalize cashmere trade via joint platform with China's Bohai." 2019. *Reuters*. (March 30). <https://www.reuters.com/article/us-mongolia-cashmere-china/mongolia-aims-to-globalize-cashmere-trade-via-joint-platform-with-chinas-bohai-idUSKBN1H60L1>(검색일: 2020. 6. 23).
- "Mongolia's meat export reaches 20-year high." 2019. *News.mn*. (January 2). <https://news.mn/en/786030/>(검색일: 2020. 6. 23).
- "Mongolian cashmere giant backs US trade bill." 2019. *Just-Style*. (July 31). https://www.just-style.com/news/mongolian-cashmere-giant-backs-us-trade-bill_id136740.aspx(검색일: 2020. 6. 23).
- "Parliament approves cashmere subsidy resolution." 2020. *Montsame*. (May 15). <https://montsame.mn/en/read/225617>(검색일: 2020. 6. 15).
- State Great Hural of Mongolia. 2016. "Mongolia sustainable development vision 2030." https://www.un-page.org/files/public/20160205_mongolia_sdv_2030.pdf(검색일: 2020. 6. 14)
- UNCTAD. 2015.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Handbook of the Scheme of the European Union." https://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itcdtsbmisc25rev4_en.pdf(검색일: 2020. 6. 28).
- UNDP. 2019. "Comparative Analysis of Sustainable Cashmere Projects in Mongolia." <https://www.mn.undp.org/content/mongolia/en/home/library/comparative-analysis-of-sustainable-cashmere-projects-in-mongoli.html>(검색일: 2020. 6. 14).
- "US-Mongolia 'Third Neighbor Trade Act' On The Way." 2018. *The Diplomat*. (November 17). <https://thediplomat.com/2018/11/us-mongolia-third-neighbor-trade-act-on-the-way/>(검색일: 2020. 6. 23).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울 및 캐시미어 제조(Ноос ноолуура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үйлдвэрлэл).”
<https://mofa.gov.mn/exp/blog/11/175>(검색일: 2020. 6. 10).

_____. 2020. “ЙЛДВЭЖИЛТ 21-ЮҮ ҮНДЭСНИЙ ХӨӨЛӨРИЙН ХӨӨЛӨРИЙН ХЭРЭГЖИЛИЙН ХЯНАЛТНИЙ ЖИЛГЭЭ Ү
НӨЛГӨӨНИЙ ТАЙЛАН.” <https://mofa.gov.mn/exp/ckfinder/userfiles/files/uildvejilt2019.pdf>(검색일: 2020.
6. 14).

몽골 통합법률정보네트워크. 비전 2050 결의문 및 부속서(“Алсын хараа-2050” Монгол Улсын урт хугацааны хөгжлийн бодлого батлах тухай). <https://www.legalinfo.mn/law/details/15406>(검색일: 2020. 6. 15).

_____. 국가 프로그램 ‘건강한 식품-건강한 몽골’ 결의문 및 부속서(“ЭРҮҮЛ ХҮНС-ЭРҮҮЛ МОНГОЛ ХҮН ҮНДЭСНИЙ ХӨӨЛӨР”). <https://www.legalinfo.mn/annex/details/9800?lawid=14388>(검색일: 2020. 6. 15).

[웹사이트]

관세법령정보포털. 세계 HS.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검색일: 2020. 6. 1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https://www.mafra.go.kr/mafra/293/subview.do>(검색일: 2020. 6. 19).

몽골통계정보서비스(Mongoli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1212.mn(검색일: 2020. 6. 9, 24).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tat.kita.net>(검색일: 2020. 6. 1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검색일: 2020. 6. 18).

UN Comtrade(검색일: 2020. 6. 11).

xe.com(검색일: 2020. 7. 2).

한국농어촌공사. https://www.ekr.or.kr/homepage/cms/index.krc?MENU_MST_ID=20221(검색일: 2020. 7. 15).